

“시간을 견뎌 극장 사라지지 않게 많이 찾아달라”

‘임시 휴업’(Temporary Close), 영화관 서터가 내려가고 절름발이 대표원은 붉은 우산을 쓰고 쏟아지는 빗속을 걷는다. 멀리 어렵듯이 보이는 영화 간판 ‘용문객잔’, 영화 ‘안녕, 용문객잔’은 그렇게 막을 내린다.
 ‘예정만세’로 베니스영화제 황금사자상을 수상한 대만의 차이밍량(57) 감독이 25일 광주극장을 찾았다. 30일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예술극장이 진행되는 윈터스쿨 참여자 광주를 방문한 차이밍량은 이날 대표작 ‘안녕, 용문객잔’ 상영 후 관객과의 대화를 가졌다.
 ‘안녕, 용문객잔’은 내일이면 문을 닫는 낡고 오래된 극장을 소재로 한 작품으로 ‘영화관에 대한 헌사’로 불리는 작품이다. 영화팬들 사이에서는 영화 속 ‘복화극장’과 비슷한 광주극장에서 관람하는 걸 고대했던 영화이기도 하다.
 시네패들이 사랑하는 작가답게 이날 극장에는 차이밍량 감독을 보기 위해 서울에서 일부러 내려온 이들도 눈에 띄었다. “차이밍량과 함께 ‘안녕, 용문객잔’을 본 오늘은 죽기전까지 잊지 못할 순간이다.” “10년 전 당신의 대표작 ‘예정만세’를 보고 평평 울었던 나의 오래된 영화 친구를 내가 사는 광주에서 만나 영광이다.”
 그에 대한 헌사가 넘쳐났다. 지난해 ‘안녕, 용문객잔’을 보고 광주극장을 영글에 담은 작업을 진행중인 전주의 사진작가 김지연씨는 차이밍량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느라 바빴다.
 차이밍량 감독은 간판실 등 영화관 곳곳을 둘러보며 공간에 깊은 애정을 표현했다. 차이밍량은 9월 아시아예술극장 개관 작품에 참여

‘안녕, 용문객잔’ 차이밍량 감독 광주극장서 관객과의 대화

“영화 속 극장과 비슷해 신기”…간판실 등 둘러봐 9월 아시아예술극장 개관작, 광주극장과 연계 추진 오래된 극장서 ‘안녕, 용문객잔’ 정기상영 어떨까요

한다. 광주극장에 깊은 인상을 받은 그는 예술극장 측에 이 극장에서 개관작과 연계된 프로젝트를 진행하겠다고 적극적으로 밝혔다.
 “광주극장을 방문한 오늘은 너무 특별한 하루였다. 극장 분위기가 익숙한 느낌이었다. 신기했다. 지금보다 관객들이 줄어든다면 이 극장도 언젠가 없어지지 않을까. 여러분들도 더 자주 방문해 달라. 지지하는 차원에서 이곳에 들러달라. 오늘을 살아가면서 내일을 예기치 못하는 게 인생이다. 내일이면 이 영화관이 사라질지도 모르는 불길한 시대에 살고 있다. 이처럼 멋진 영화관이 사라지지 않고 오래 지속됐으면 좋겠다.”
 이날 관객과의 대화는 30분 정도 예정됐지만 질문이 이어져 1시간 30분간 계속됐다. 영화를 바라보는 시선 등 다양한 질문이 오고갔다.
 “요즘에는 영화가 하나의 소비나 오락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영화관에서 티켓을 살 때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싶어한다. 좋아하는 스타를 만나거나, 스토리를 접하거나, 감동을 얻는 것 등이다. 영화 자체에 대해 생각하는 이들은 많지 않은 것 같다. 영화는

오락 산업이 되고, 자유로운 창작물을 만드는 것은 점점 어려워진다.”
 그는 50대 프랑스 여자와 18세 대만 청년의 이야기를 통해 영화를 관람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인터뷰 중 여자가 요즘 영화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움직이는 것 같다는 말을 했다. 내가 책장을 넘기지 않는데 누군가 책장을 넘겨주는 기분이라고 하더라. 수많은 영화를 봤지만, ‘안녕, 용문객잔’을 보고 영화 자체를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고도 했다. 지속적인 흥테이커가 주변의 작은 소리에 귀 기울이고, 생각을 하게 해준다는 말이었다. 몇년후 할리우드 영화만 봤고, 대만영화는 처음이라는 청년에게도 비슷한 말을 들었다. 이번에 처음으로 색깔 있는 영화를 봤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밥술에서 김하는 소리, 비오는 소리 등 아주 작은 소리까지 속속들이 느낄 수 있었다는 말이었다. 영화를 관람할 경험도 너무 다르고 멀리 떨어져 있는 두 사람이 느끼는 것이 같다는 게 신기했다.”
 차이밍량은 아시아예술극장에 올릴 작품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이번에 공연하는 작품은 무대극이자, 전시극이기도 하다. 지속적으로 작업하고 있는 ‘행자 시리즈’로 한 사람이 천천히 걷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 광주극장과 연계해서도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그는 ‘안녕, 용문객잔’을 찍게 된 스토리도 들려줬다.
 “낡고 오래된, 시간을 견뎌오는 공간은 소중하지만 점점 사라지는 추세다. 스무살 때 고향 말레이시아를 떠난 후 3년 정도 지나 돌아갔을 때 극장이 거의 사라지고 없었다. 다른 매체들이 많이 생겼으니 폐쇄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한때 마흔살 때 고향의 그 극장같은 영화관을 꿈에서 봤다. 이 영화관이 끊임없이 나를 찍으려고 곧 없어질지도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았다. 그제서야 기억하지 못했던 많은 기억들이 떠올랐다. 그래서 찍게 된 게 ‘안녕, 용문객잔’이었다. 영화 속 극장은 영화를 찍은 얼마 후 폐관됐다. 당시 문을 닫은 영화관의 100개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다.”
 차이밍량은 광주극장에 데크담도 건넸다.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났다. 극장에서 또 다른 극장의 영화를 바라보는 것, 참 흥미있는 일이다. 영화 속 극장과 비슷한 이 영화관이 ‘안녕, 용문객잔’을 정기적으로 상영하는 특별한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 광주 지역을 여행하는 이들의 패키지에도 넣으면 어떨까. 전 세계 오래된 영화관이 동시에 ‘안녕, 용문객잔’을 상영하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다.”
 그의 말이 끝나자 박수와 환호가 쏟아졌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아시아예술극장 제공>

대인예술아시장 ‘별장’ 30~31일 개최

광주 대인예술아시장이 올해는 1월부터 시민들을 찾아가 간다.
 대인예술시장 별장프로젝트(총감독 정삼조) 사무국은 오는 30~31일 올해 첫 아시장 행사 ‘별장’을 개최한다.
 1월 아시장 행사에는 겨울철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시장 상인, 상주예술가, 셀러 등 모두 200여 팀이 참여한다.
 또 게릴라 공연이 아시장의 열기를 달군다. 화가 박문종의 퍼포먼스와 광주 ‘인디 여신’ 라페탈(인디밴드 우물안 개구리 보컬) 등 색깔 있는 인디밴드 공연이 준비돼 있다.
 올해는 ‘대인예술아시장을 중심으로 작가가 레지던시, 세시봉(歲時·Bon), 메이커스 스튜디오, 아트상품 창작워크숍, 한평갤러리 등 상인과 예술가, 메이커스, 시민이 함께 만들어 가는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상주예



술가들이 준비한 ‘세시봉(歲時·Bon)-재래시장 속 세시풍속 전’은 지난 16일 ‘한양(漢洋)’을 주제로 문을 열었다.
 1월에 만나는 ‘한평갤러리’ 주제는 ‘7+2 동행’이다. 27일에 오픈하는 한평갤러리 전시에는 레지던시 참여작가 조은숙·정호성·전현숙·문유미·최은태 작가 등이 참여한다.
 문의 062-233-1420.
 /김정민기자 kki@kwangju.co.kr

음악회 같까 28일 ‘문화가 있는 날’ 미술관 같까

유·스퀘어 야외광장 음악회 시립미술관 큐레이터와 대화

28일 올해 첫 ‘문화가 있는 날’(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행사가 열린다.
 유·스퀘어 문화관은 이날 오후 6시 유·스퀘어(실내광장)에서 아시아공연예술위원회 현악 4중주단을 초대에 ‘아름다운 유·스퀘어 음악회’를 개최한다.
 박하늘(제1바이올린), 박주양(제2바이올린), 박선경(비올라), 강세연(첼로)으로 구성된 현악 4중주단은 친숙한 세미 클래식과 영화음악, CF삽입곡 등을 연주할 예정이다. 레퍼토리는 영화 ‘엽기적인 그녀’ OST 파헬렐의 ‘개논’, 영화 ‘하울의 움직이는 성’ OST ‘인생의 회전목마’, 그률헤트의 왈츠, 비틀즈의 ‘헤이 주드’ 등이다.
 한편 유·스퀘어는 이날 동안아트홀에서 진행되는 연극 ‘그녀를 믿지 마세요’의 관람료를 40% 할인한다. 문의 062-360-843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시립미술관(관장 조진호)도 28일 ‘큐레이터와의 대화’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이날 오후 6시 미술관 2층에서는 원로작가조대진 ‘최종섬, Korean Fantasy’에 맞춰 ‘큐레이터와 함께하는 뮤지엄 토크’를 진행한다.
 오후 7시부터는 미술관 1층에서 ‘하정웅정년작가초대전-빛2014’ 참여 작가들과 함께하는 ‘작가와의 만남’ 행사가 열린다. ‘Tree of life in island’ 연작을 제작해 온 이정복 작가와 여러 매체를 통해 드로잉 작품을 보여 주고 있는 신도원 작가가 참여해 현대미술과 예술세계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다. ‘큐레이터와의 대화’와 ‘작가와의 만남’ 행사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날 오후 6~8시 지역청년미술인 간담회도 진행된다. 윤익 학예연구과장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김효은씨가 ‘미술관과 지역미술인의 새로운 협업의 가능성’ 등을 주제로 진행한다. 문의 062-613-7143.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기원전 1세기 직조도구 한자리

광주박물관 ‘신창동 직물문화’ 개최

국립광주박물관은 2015년 양미해를 맞아 특집전 ‘비단(Silk)의 고장, 광주 신창동의 직물문화’를 개최한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3요소인 의(衣)·식(食)·주(住) 가운데 ‘의’는 인간만이 가진 중요한 특징이다. 언제부터 옷을 입기 시작했는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신석기시대부터 확인되는 가락바퀴는 실 생산의 직접적인 증거로 풀이된다.
 ‘삼국지’, ‘후한서’ 등 중국 기록에서 삼한은 일찍부터 양잠을 하며 비단과 베를 짜다고 전해진다.
 신창동유적은 기원전 1세기 무렵 농경문화를 기반으로 한 대단위 복합유적으로 토기, 목기, 골각기, 철기 등 다양한 유물이 출토됐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비단과 삼베 조각이 확인됐고, 이를 만들기 위한 바다·실감개·빠바늘 등 직물생산 및 봉제도구도 출토됐다.
 이번 전시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직물과 직조도구(사진)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28일 오후 6시30분에는 ‘큐레이터와의 만남’ 행사가 진행된다.
 /김정민기자 kki@kwangju.co.kr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백명숙 이사, 유경선 원장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까지...

중매 잘한다~ 성사 잘한다~ 소문!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출업
(광주 서석초등학교 졸업, 국민연극단, 공무원연극, 한국도로공사 다년재직)

서울대학교총동창회 결혼정보서비스업체

초혼	추천 회원	재혼
<p>♂ 의사, 변호사, 약사, 한의사 27-45세 편사, 검사, 변호사, 회계사 28-47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사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 삼성, 현대, LG 직원 28-47세 은행원, 연구원 29-49세 대(중, 소)기업 직원 27-48세 사업가, 자영업 29-39세 세무사, 연구원 29-48세 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 교사, 교수 28-49세</p>	<p>♀ 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 오케스트라단원, 회사원 26-41세 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 의사, 약사, 교사 25-39세 변호사, 회계사, 변호사 26-39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 간호사, 은행원 26-47세 학원(음악)원장, 교사 27-42세 스태디스, 영양사 26-42세 미스코리아, 미스코복 27-36세</p>	<p>♂ 의사, 변호사 32-65세 국영기업체 기관장 52-66세 공무원, 교사, 교수 35-65세 대기업 근무 36-59세 회사원, 자영업 33-67세 '무출산 여성' 희망 31-58세</p> <p>♀ VIP 희망 여성 29-53세 학원(음악)원장, 교사 27-63세 공무원, 교사 32-58세 간호사, 회사원 29-48세 자영업, 가사 35-64세 '무자녀 남성' 희망 28-48세</p>

임페리얼 클럽
 강남역 7번출구 70m 4층 02-521-4405
 호남지사 063-275-7766

광주·전남 기능장1호 대산 프리모 남가발

국무총리상 표창·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광주광역시시장 표창·광주남구 구청장 표창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X, 핀 X
원장 직접시술 1만여명 내공!

M.H.타사 신제품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59만원~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NAVER 주소:(D) 대산프리모·미예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리안은 상가12층
대표전화 :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재 011-607-5330
대산프리모가발